

시인의 마을

양향숙 시인의 '엄마의 베들'

북 놀림에 따라 시계추가 되
있던 어린 눈길
베들이 있던 작은 방
지역 저편
엄마는 곱디고운 여인이었다



박 여 범

음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양향숙 시인 (한국사진문학협회
회장), '엄마의 베들' 연문

북: 베들에서 낚시의 뜰으로 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베 모양의
기구

시꽃을 담겨

'엄마의 베들' (양향숙 시인 한국사
진문학협회 회장)은 디카시다.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디카)-시
의 유입권이다. 자연이나 사물의 형
상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지적
표현을 토해내는 작업이다. 최근 인
스타그램, 페이스북, 브런치, 카카오톡
리, 트윗, 카톡 등 다양한 SNS를 통
해 사진과 생각을 공유하며 소통하
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
다. 심지어 소통이란 측면에서 디카



시는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문지는 짧게 5행으로 표현한
다. 이러한 디카시는 2018년 국립국
어원에 문학 용어로 정식 등재되었
다.
시인은 숲에서 우연히 만난 거미
줄을 베들이라는 소재에다가 곱디고
운 여인 엄마를 노래하고 있다. '엄

마'라는 두 글자는 '격격함'이라 표
현하고 있다. 베들은 '삼베, 명주,
무명 따위의 피륙을 짜는 틀'의 명
사다. 짧은 층에는 낚신 단어로, 베
들'에 대한 상상조차 힘들지도 모르
다. 그러나 위의 사진 속 거미줄을
통해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베들과
우리 엄마의 수고를 어느 정도는 직

작할 수 있다.
우리가 시에서 만날 수 있는 영원
한 기억 속의 '엄마'는 곱디고운 여
인/이었다. /북 놀림에 따라 시계추
가 되었던 어린 눈길/베들이 있던
작은 방 기억 저편 /너머 아스라이
남아 있는 엄마의 청춘이다. 그런
엄마가 세월이 흐른 지금은 /확실히
첫 평생 짝 은 삼베 같은 주름/ 가
득 /햇살에 눈부신 그 후학처럼 시
인의 마음을 가지런히 그물망을 친
거미줄을 통해 찾아가고 있다.

나섯 줄의 짧은 표현이다. '곱디고
운 베들, 거미줄, 북 놀림, 엄마와의
추억, 낚시어섯, 주름, 햇살, 후학'이
란 핵심어를 통해 시인이 전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보자.
기다가, 우리들의 영원한 엄마란
존재를 떠올리는 독자의 시각으로
바라볼수 있기를 소망한다. 엄마가
된 지금에서 바라보는 여과, 거미줄
과 베들을 통해 다가오는 엄마를 무
주 삼피면서 아픈 손가락은 없는지
조금 더 흔적 여행을 떠나자.

양향숙 시인(호수 · 푸른)은 현재
한국사진문학협회 회장이다. 시인은
서정론의 등단하여, 시집 '꽃마리의
여가' 공동시집 '순례에서 만난 인
연' 디카시집 '붉은 심장' 등을 출
간하였다.

사설

여류 독립운동가 김란사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적극
적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김란사(金蘭
史1875~1919)는 교육자이자 독
립운동가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이
하란사(河蘭史)로 전해졌다. 원
래 성씨인 전주김씨에서 남편
성씨인 하씨를 따른 것이다. 그
는 평양에서 부친 김병훈과 모
친 이씨 사이에서 1남 1녀 중 장
녀로 태어났다.

서울로 이주해 한학을 배웠으
며 1911년 부친은 무역업에 전념
하기 위해 인천으로 이주했다.
이화학당 입학 후 이름을란사
(蘭史)라 했다. 성씨는 남편 하
(河)씨를 따랐다.

가장 큰 오해는 하란사가 기생
출신으로 남편인 인천 별감 하
상기(河相驥)의 첩이 됐다는 설
(說)이다. 이는 사실과 다른 것
으로 알려졌다. 무역업을 하던
부친 밑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
렸으며 결혼 역시 하상기의 전
처인 조씨 부인이 사망한 이후
시집을 갔다.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도쿄 계

이요기주쿠(慶應義塾)대에서 공
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주 웨슬
리안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이화학당 학생 자치단
체인 이문회(女文會)를 조직하
고 지도했다.

이곳에서 유관순은 이문회 회
원으로 김란사의 지도를 받았다.
김란사는 이화학당의 교사와 기
숙사 사감을 거쳐 교감으로 활
동했다. 프랑스 파리 국제 강화
회의 한국 대표로 비밀리에 파
송됐다.

그러나 중국 베이징에서 목숨
을 잃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
음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
다. 시인이 검게 변해 있었다는
증언으로 독살설이 유력하다.

김란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그 업적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
았다. 김란사는 수많은 여성 독
립운동가 재조명 작업의 시작에
불과하다. 김란사의 생애를 기려
하는 광복 76주년 특별전이 올 8
월 13일부터 내년 2022년 3월까
지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노인회 감사패 수상 양영환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이 최
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로부
터 감사패를 받아 눈길을 끌었
다. 그의 지역구는 동서학동, 서
서학동, 평화·2동이다. 취약계
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양 의원은 관내 노인 복지 증
진 및 노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불편 사항을 해
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고 있다.

평소 이웃 사랑과 노인 공경을
실천하는 의원으로 평가 받는
이유다.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기 때문
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와 노인
사회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
끼지 않는다.

양 의원은 지난 7월 평화동 삼
성강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는 주민들을 위해 물심양면으
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
다.
주민들은 주민 상호 간의 유대
강화 및 화합을 위하여 양 의원

이 더욱 헌신 봉사해 줄 것을 바
라고 있다. 의원들은 항상 소리
소문 없이 주민들의 행복과 복
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과 소
통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지역 주민 사
람이 충만해야 한다. 여전히 북
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
계층이 많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의 복지 수
준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의
원들은 주민 복지 서비스의 질
을 높이고 맞춤형 정책을 실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백세시대 노인 복지 문제
는 말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
다.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
니다. 자칫 오래 사는 것이 오히
려 독이 될 수 있다.

양영환 의원은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백세시대를 맞이'하
고 고 강조한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기
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철조망 사이 폴란드 경찰 바라보는 난민 어린이들



17일(현지시간) 벨라루스 그로드노 인근 벨라루스-폴란드 접경 지역의 쿼즈니차 검문소 철조망에서 난민 어린이들이 폴란드 경찰을 바라보고 있다. 폴란드 관계자는 벨라루스 지역 난민촌의 난민들이 버스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 이는 긴장된 대치 상황이 완화될 수 있는 신호라고 밝혔다. 앞서 벨라루스 정부는 난민들을 인근 시설로 옮기기 시작해 난민 갈등이 봉합되는 조짐을 보였다.

'최악의 장난감' 발표하는 미국 어린이 보호단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유해 장난감에 맞서는 세상'(World Against Toys Causing Harm, WATCH)의 제임스 슈워츠 이사가 17일(현지시간)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 '최악의 장난감 10종' 후보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난감 웬마트 쇼핑 바구니와 질식 테스트 측정기를 들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